

## 한국형 자존감 평가영역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이 동 귀

연세대학교

양 난 미†

경상대학교

박 현 주

동국대학교-서울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이 자존감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과 해당 영역별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간편하면서도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총 3개의 연구를 통해서 한국인의 자존감 평가 영역인 사회적/객관적 능력, 긍정적 성품, 대인관계 그리고 가족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측정하는, 29문항으로 구성된 한국인 자존감평가 영역 척도(Domains of Self-Esteem Appraisal Scale for Koreans; DoSEAS-K)가 개발·타당화 되었다. ‘사회적/객관적 능력’은 학력, 직업, 경제력 등 외적으로 드러나는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긍정적 성품’은 타인의 의견이나 평가와 상관없이 개인이 내적인 기준에 따라서 만족할 수 있는 노력, 성실성, 가치관, 윤리 등과 같은 문항이 포함되었다. ‘대인관계’는 친구관계, 공동체 내 관계와 같이 타인과의 관계와 관련된 영역이며, ‘가족’은 가족에 및 가정 분위기를 측정하는 영역이다.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한국인 자존감평가 영역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한 결과, 양호한 수준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 문항 간 내적 일치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4주 간격)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척도의 의의와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자존감, 평가 영역, 수반성, 척도 개발

\* 이 논문(저서)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0-B00234).

† 교신저자: 양난미,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660-701)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Tel: 055-772-1265, E-mail: behelper@gnu.ac.kr

자존감은 인간의 주관적 삶을 이해하고,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다(Brockner, 1984; Diener, 1984; Rosenberg, 1965). 낮은 자존감은 공격성, 낮은 학업 성취도, 섭식장애, 신체적 건강 문제, 청소년 임신, 부부간 불화 등과 관련되었고(Dawes, 1994; Mecca, Smelser, & Vasconcellos, 1989; Scheff, Retzinger, & Ryan, 1989), 반면 높은 자존감은 높은 포부 수준(Baumeister & Tice, 1982), 긍정 정서(Diener & Emmons, 1984; Pelham & Swann, 1989), 행복감(Fordyce, 1988; Furnham & Cheng, 2000) 및 삶의 만족도와 관련되었다(안현진, 2003; 차경호, 2001; Diener & Diener, 1995; Quevedo & Abella, 2011; Tesser & Martin, 2006).

하지만, 단순히 전반적인 자존감(global self-esteem)의 높고 낮은 정도만으로 개인의 정신적 건강과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실제적인 성과는 이루지 않은 채 자존감만 높은 경우 대인관계에서 폭력성과 관련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Baumeister, 1998; Baumeister, Smart, & Boden, 1996), 또한, 노화, 우울, 상실 등의 경우 전반적인 자존감과 관계 양상이 비(非)일관적이었고(Brandstadter & Greve, 1994), 그 중에서 특히 우울은 자존감의 높고 낮음이 아닌 시간에 따른 불안정성과 관련이 있었다(Roberts & Gotlib, 1997). 이와 같은 이유로, 자존감의 측정과 평가에 있어서 단순히 자존감의 수준이 높고 낮음을 넘어, 자존감의 안정성, 특질적/상태적 특성의 구분, 그리고 자존감의 영역 수반성을 측정하는 등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Brown, 1994; Crocker & Wolfe, 2001; Leary & Downs, 1995).

한국 심리학에서도 자존감은 인간을 이해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한국 사회에서는 그동안 자존감을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간 자존감의 측정에 사용된 도구를 살펴본 결과, 주로 Rosenberg(1979)가 개발한 전반적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가 사용되었고 자존감과 관련된 많은 유용한 연구결과들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이 척도의 경우, 앞서 제기한 자존감 측정의 다양한 시도가 반영되었다기보다, 명시적이고 개인 내적인(intrapersonal) 측면의 전반적 자존감 수준만을 측정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더불어, 동일한 척도를 다수의 연구자가 각각 변안함으로써, 동일 문항이 다양한 버전으로 변안되고, 일부 문항이 누락되는 등 변안 및 타당화 과정이 일관적이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이와 같이 전반적 자존감의 높낮이에만 집중하게 되면 개인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영역에 따라 자기 가치감도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Crocker & Wolfe, 2001). 즉, 자존감을 높이고 그 수준을 유지,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지만(Leary, Tambor, Tedral, & Downs, 1995),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영역에서의 만족감이 필요한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영역별 자존감’ 개념은 William James(1980)의 ‘중요성 가설’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 가설에서는 개인이 중요시하는 영역의 속성이나 능력이 자기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Crocker와 Wolfe(2001)는 ‘자기 가치감의 수반성 이론(contingencies of self-worth theory)’을 제안하였는데, 해당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특정 영역에서 성공을 추구하거나 실패를 피함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상승, 보호, 유지하고자 하는데,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영역은 개인마다 서로 다르다(Crocker, Luhtanen, Cooper, & Bouvrette, 2003). 즉, 특정 영역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자존감 수준이 달라질 때, 자존감은 해당 영역에 수반(contingent)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른 자존감의 변화가 클수록 수반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Crocker와 그의 동료들(2003)은 기존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자존감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된 변인들(사랑, 승인, 권력에 대한 욕구)을 기초로 대학생의 자기 가치감의 수반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The Contingencies of Self-Worth Scale; CSWS)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7개의 자존감 영역(타인의 승인, 외모, 경쟁, 학업적 자신감, 가족의 지지, 미덕, 신의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도구를 사용한 연구들을 통해 중요성 가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 왔다(Crocker et al., 2003; Park & Crocker, 2005). 한국 사회 역시, 자존감을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영역과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만족도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이수란, 이동귀, 2008), 자존감을 평가할 때 한국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존감 영역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자존감 평가에 중요한 다양한 삶의 영역<sup>1)</sup>

1) 엄밀히 말하면 ‘영역별 자존감’이라는 용어는 정확하지 않은 용어인데, 그 이유는 자존감을 평가할 때 중요한 영역에 대한 개인의 능력 점수는 전반적인 자존감과 상관은 높지만 자존감 점수 그 자체와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안신호와 박미영(2005)은 “구체적인 영역에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 즉 영역별 능력”(p. 110)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차경호, 홍기원, 김명소, 한영석(2006)은 자존감의 ‘구성요소’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안신호와 박미영이 사용한 용어는 ‘영역별 능력’이 결국 자존감을 평가할 때 사용된다는 측면을 포괄하기 어려운

을 조사한 기존의 연구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고찰해 보면, 먼저 일련의 연구는 자존감을 전반적인 점수로 보는 대신 특정 영역(예: 외모, 학업, 사회적 관계 등)에 대한 지각된 능력과 유능성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김희화, 김경연, 1996; 안신호, 박미영, 2005; 이수란, 이동귀, 2008; 이은혜, 신숙재, 송영주, 1992; 차경호 등, 2006; 홍기원, 2008; 홍기원, 김명소, 이종택, 한영석, 2003; 홍기원, 한영석, 2005; Coopersmith, 1967; Crocker & Wolfe, 2001; Crocker et al., 2003; Fitts, 1965; Harter, 1982, 1985, 1990; Marsh, 1986, 1992; O'Brien & Epstein, 1988; Park & Crocker, 2005; Pelham & Swann, 1989; Piers, 1969). 본 연구자들이 자존감 관련 문헌을 고찰한 결과 지금까지 최소한 13개의 도구가 자존감평가에 중요한 삶의 영역(혹은 자아영역)의 측정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이 13개의 척도는 다음과 같다. ① Piers-Harris 자기개념척도(Piers, 1969; 신윤오, 조수철, 김병로, 1994 번역, 80문항), ② 테네시 자기개념척도(Fitts, 1965; 정원식, 1995, 100 문항), ③ Coopersmith 자존감 검사(Coopersmith,

점이 있고, 차경호 등이 사용한 용어에는 ‘영역’이라는 측면이 잘 부각되지 않고 이 영역들이 자존감을 구성하는 하위차원인 것처럼 간주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자존감을 평가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영역’을 포착하기 위해 ‘자존감 평가의) 영역(Domains of Self-Esteem Appraisal)’으로 지칭한다.

2) 참고로, 많은 측정도구가 ‘자존감’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기개념, 자기지각, 자기기술, 자기속성, 자기가치’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자기 가치에 대한 평가’라는 관점에서 선행연구들(예: 안신호, 박미영, 2005; 차경호 등, 2006)에서도 이 도구들을 자존감 평가 영역의 측정도구에 포함시켰다.

1967; 신철, 1997, 32문항), ④ Harter 자기지각 프로파일검사-지각된 역량검사(Harter, 1982), ⑤ Harter 자기지각프로파일검사-아동용(Harter, 1985; 이은혜 등, 1992, 36문항), ⑥ Harter 자기지각프로파일검사-청소년용(Harter, 1990), ⑦ Marsh 자기기술질문지-아동용(Marsh, 1986; 김희화, 김경연, 1996, 49문항), ⑧ Marsh 자기기술질문지-청소년용(Marsh, 1992), ⑨ Marsh 자기기술질문지-청소년 후기~성인용(Marsh, 1992), ⑩ 다차원 자존감질문지(O'Brien & Epstein, 1988; 홍기원, 2008), ⑪ 자기속성질문지(Pelham & Swann, 1989), ⑫ 자기가치 수반성척도(Crocker 등, 2003; 이수란, 이동귀, 2008, 29문항), ⑬ 한국형 자존감척도(차경호 등, 2006). 이 13개 척도에서 지금껏 제안된 자존감 평가 영역을 분석해 보면, 절반 이상의 척도에서 언급된 자존감의 영역은 크게 여섯 가지(학업, 신체/외모, 사회/관계, 인정/인기, 도덕, 체력)로 나타났는데 특히 학업과 신체/외모 영역은 거의 모든 척도에 포함됨으로써 그 보편성 및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사회적 관계 능력’, ‘다양한 타인(부모, 배우자, 이성친구, 동성친구 등)으로부터의 인정 및 수용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지각된 인기나 호감’, ‘도덕 및 윤리’, 그리고 ‘체력 및 운동/스포츠 관련 능력’도 빈번히 보고된 영역이었다.<sup>3)</sup>

이러한 측정도구들이 자존감 혹은 관련된 자기개념 평가와 관련된 삶의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도구들을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언급된 13개의 척도

중 12개의 척도가 개인주의 문화 중심인 서구에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집단주의 문화로 대변되는 한국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문화비교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각 문화에서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가 제공하는 틀에 근거하여 자신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offman, 1959; Mead, 1934). 예를 들어, 개인주의로 대변되는 서구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되며,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고유 내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이상적으로 간주한다(Hallowell, 1955). 이에 비해 집단주의 문화인 한국 사회에서는 상호의존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최상진, 윤호균, 한덕용, 조공호, 이수원, 1999). 일례로, 차경호 등(2006)의 연구결과를 보면, 자신-타인, 부모에 대한 인정, 경제력, 자녀에 대한 만족 요인이 한국 성인의 자존감의 구성 요인이었으며, 해당 요인의 만족감이 심리적 안녕감으로 이어졌다. 즉, 한국 사회에서는 서구 사회와는 다르게 가족 및 타인의 인정을 받고 뛰어난 성취를 이루는 것이 개인의 자존감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한국어로 번안해서 바로 사용하는 것은 번안·타당화 과정의 엄정성은 차치하고라도 서구인과 다른 한국인에게만 고유한 자존감 평가 영역을 온전하게 측정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두 번째 한계점은 기존 도구의 경우 대부분 서구인을 대상으로 개발·타당화 되었을 뿐 아니라 모든 연령층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드물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통계청, 2010), 행복지수 또한 34개국 가운데, 26위를 차지하는(OECD, 2012) 등 정신

3) 13개 각 척도의 문항 수, 연구 대상, 세부적인 구성영역에 대해서는 지면 관계상 생략하며 필요한 독자는 주저자에게 이메일(lee82@yonsei.ac.kr)로 요청할 수 있다.

건강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전 국민의 정신건강의 향상 측면에서 자존감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연령, 직업, 지역 등과 상관없이 전 국민의 가치가 반영된 자존감 영역을 살펴보고,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하다. 즉, 전국단위의 인구비례에 맞춘 표집을 통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기존의 도구들은 자존감을 평가하는 영역이 구체적이지 않다. 일례로, 7개의 세부 영역에 걸쳐서 비교적 세부적으로 자존감 평가영역을 제시한 자기가치 수반성척도(CSWS)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영역들이 추상적인 수준에서 묘사되고 있다. CSWS가 제시한 유능감 영역의 경우에도 학력/학벌, 직업, 학업성적, 명예 등과 같이 더 구체적인 요소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영역이 자아개념의 하위영역과 많은 관련이 있어, 자아와 무관한 외부 요인 중 자존감 평가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영역들(예: 경제력, 자녀의 성취 등)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한계점을 잘 극복한 유일한 예외는 차경호 등(2006)의 연구이다. 이 척도는 지역적 인구비례에 근거한 20~64세 한국인 1,503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에게 고유한 자존감 평가영역을 조사하였는데 먼저 예비연구과정에서 61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통해 한국인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을 조사하여 148개 예비문항을 선정하고 요인 분석 절차를 사용, 총 78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11개 영역(자신-타인에 의한 인정, 부모에 의한 인정, 사회로부터의 인정, 배우자에 의한 인정, 타인으로부터의 인기, 국가 자부심, 신체적 매력·외모, 자녀에 대한 만족, 자신의

성취, 경제력, 사회봉사)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 자존감 평가영역에는 ‘다양한 사람들로 부터의 인정’ 및 인기와 관련된 문항들이 전체의 약 60%(78개 중 46개 문항)를 차지한다는 문제점과 국가 자부심(예: 우리나라 제품 중 세계적인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과 같이 ‘개인의’ 자존감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생경한 문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문제는 예비문항 선정과정에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FGI를 실시할 때 자존감 평가시 고려하는 중요한 ‘삶의 영역’에 대해 직접 질문하기보다, ‘무엇이 당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가? 언제 자존심이 상하는가? 자긍심을 느끼는 상황이 언제인가?’ 와 같이 자존감이 고취 혹은 저하되는 ‘상황’에 대해 질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상황적인 요인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문항들이 대거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 걸쳐서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자존감 평가에 중요한 영역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 척도는 문항 수가 많아서(78문항) 후속 연구나 상담센터와 같은 현장에서 실시하기에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자존감 평가에서 중요한 삶의 영역들을 잘 측정할 수 있는 간편하면서도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한국 문화의 특수성을 잘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 자존감 평가 영역 관련 문항 수집뿐만 아니라, ‘경험적 문항개발 과정’을 병행해서 문항을 완성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선정된 예비문항들을 척도 개발 과정을 통해 최종 자존감 영역과 그 문항들을 개발하고 총 3차에 걸친 과정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 연구 1: DoSEAS-K 문항 개발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을 잘 반영하는 자존감 평가 영역척도(DoSEAS-K) 예비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경험적 문항개발 방법인 개방형 질문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예비문항의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구성개념의 타당성과 내용타당도를 검토하였다.

## 방 법

### 연구대상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기 위해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연령, 성별, 학력, 직업, 결혼여부, 지역별 분포 등을 감안하여 전국단위 할당표집(Quota Sampling)을 통해 만 13세부터 만 59세까지 54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수집하였다. 성별분포는 남성 274명(50.2%), 여성 272명(49.8%)이었고, 연령분포는 10대 59명(10.8%), 20대 124명(22.7%), 30대 121명(22.2%), 40대 129명(23.6%), 50대 113명(20.7%)이었다. 더불어, 예비척도 문항의 사전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대학생 총 67명을 모집하였다. 응답자의 성별분포는 남자가 25명(37.3%), 여자가 42명(62.7%)이며, 연령분포는 19세에서 48세까지였고 평균 나이는 22.19( $SD = 4.84$ )였다.

### 연구절차

우선, 기존 한국에서의 자아존중감의 구성개념을 반영하기 위해, 여대생 379명을 대상으로 국내 학교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아개념검사(정원식, 1995)를 실시한 자료에 대해 척도 문항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 부하량이 높은 문항들을 예비문항으로 선정하였다. 동시에 경험적 문항을 포함하기 위해 이명희와 김아영(2008), 한유화와 정진경(2007), 그리고 홍기원, 김명소와 이종택(2003)의 질적 연구 인터뷰 질문을 참고하여 일차적으로 자아존중감 영역에 대한 개방형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이 질문지를 10대 남녀 각 5명과 40대 남녀 5명에게 문항 응답성, 이해도 그리고 적절성을 검토 후 최종적인 개방형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개방형 질문지 문항들은 “당신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역은 무엇입니까(최소한 5가지 영역 이상)?”, “당신의 주변사람들(친구, 또래, 동년배)이 자신들의 자아존중감을 평가할 때 중요한 영역은 무엇입니까(최소한 3가지 영역 이상)?”, “당신은 언제 자아존중감을 느끼십니까(최소한 3가지 이상)?” 등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개방형 설문지를 전국 13세 이상 59세 이하 546명에게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에서 나타난 응답 내용들을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외부 전문가 3명이 객관적인 평정 과정을 통해 범주화하여 최종 24개의 범주와 106개의 하위항목을 도출하였다. 이들은 개별응답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비슷한 내용을 묶어서 상위 항목을 만드는 방식으로 응답내용을 범주화하였다. 이때 3명 평정자의 평정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전원이 합의에 이를 때까지 개별 반응과 상위 항목을 검토하였다. 각 항목별로 응답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개방형 질문지 응답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인 항목과 응답률, 국내에 타당화된 자아존중감 관련 척도, 자아개념검사의 요인분석 결과

표 1. 1차 범주화 결과 대분류와 하위 항목

대분류	하위 항목	Q1전체	Q2전체	대분류	하위 항목	Q1전체	Q2전체
가족	가족, 가정	13.8	4.6	사고	사고, 생각	1.2	1.2
	배우자	2.8	1.2		성취	성취	7.4
	부모	2.6	0.6	목표		0.8	0.4
	형제, 자매	0.4		도전		1.8	0.2
	자녀	2.8	2.6	자아실현		1.2	0.2
	가족의사랑	4	0.8	습관	꿈, 희망, 미래	2.2	1
	배우자사랑	0.4	0.2		외모	18.4	14
	자녀사랑	0.2	0.2	외모	몸매	1.2	0.8
	부모사랑, 효심, 효도	0.6			피부	0.2	
	집안, 가문	1.6	1.6		키	1.6	
	훈육방식	1.4			젊음	1.4	0.6
	가족구성원의역할	1	0.2		외적치장	1.8	1.2
	친척, 시댁	0.4			기타	1	
	가정생활	0.6		인격	긍정성	8.8	2.6
가치관	종교	3.8	0.6		성격	13	10
	도덕	1.2	0.6		배려	5.8	3.6
	가치관	2	1.8		인내	1.4	
	특정가치	2	0.4		노력	6.8	3.8
	예절	1	0.4		이해	1.6	1.6
	양심	0.6			신뢰	1.2	1.8
	봉사, 불우이웃, 기부, 기여	4.4	1		책임	2	0.6
	사회적기준	0.6	0.2		기타	6	2.8
	정의	0.2	0.6		인정	인정	5.6
	화합	0.4		주변인, 타인, 사회 인정		3.6	
감정	2.8	1.4	부모, 친척의 인정	0.6		0.2	
건강	건강	9.6	3.4	인정	배우자의 인정		
	정신적건강	1.2	0.2		평가	3.6	1.6
	신체적건강	1.2	0.4		상호적인정	1.6	0.8
	음식	0.4			자기인식	자기애	5.2
경제력	경제력(돈, 현금)	34	28.8	자신		2.6	1
	연봉	5	3.2	만족		4.2	1
	소유물	3.8	2.8	자신감		자신감	9
	여유	1.4	0.8				

능력	언어능력	2.4	1.2	지식	지식	6	1.8	
	능력	11	6.8		학문	2.8	0.4	
	특기	1.6	1		지적호기심	0.2	0	
	능력	자기개발	1.8	0.2	직업	일	13.4	9
		업무능력	2.6	1		사회생활	1.6	0.6
		문제해결능력	2	0.8		직업에서 만족	0.8	0.2
		리더십	1.4	0.8		경력	0.8	0.2
	능력	직관력	1		학력	학력	12	6.2
		기타능력	1.2	0.2		교육	4	2.4
대인 관계	동료관계	4.2	1	행동	행동	1.4	1.8	
	대인관계	17.2	8.8		경험	1.6	0.4	
	사회능력	3.4	2.4		태도	1.4	2.8	
	우정관계	14.8	5.2	행복	관심	1.4		
	이성관계	2	1		사랑	6.2	1	
명예	명예(표창)	3.6	2.2		행복	2.4	0.6	
	권력, 권위, 품위	1.2	1	환경	주변환경	4.4	1.2	
	지위	6.6	6.2		사회환경	1		
			주거환경		3.4	0.8		
문화	문화	1	0.2	기타		7.2	2.4	
	여행, 휴식	0.6	0.2					
	취미	5.4	1.8					
	대중매체	1.8						

표 2. DoSEAS-K 연구 1 최종문항

1 정신적 건강	11 객관적 능력	21 중요한 사람의 인정	31 이성/연인관계
2 신체적 건강	12 주관적 능력	22 사회적 평판	32 공동체내 관계
3 외모	13 지적능력/지식	23 자신의 경제력	33 자원봉사/기부
4 인품/성품	14 말씀씨/화술	24 가족의 경제력	34 취미/여가생활
5 긍정적 태도	15 성취/성공	25 소유물	35 주변생활환경
6 배려/존중	16 학업성적	26 가족구성원	
7 노력/성실성	17 학력/학벌	27 가족 간의 사랑	
8 자신감/자부심	18 직업	28 가정생활/분위기	
9 가치관/윤리/도덕	19 자신의 명예/지위	29 대인관계	
10 종교/신앙	20 가족의 명예/지위	30 친구관계	



표 3. DoSEAS-K 예비문항 이해도 및 중요도 분석결과(N = 67)

	문항 이해도				문항 중요도			
	M	SD	왜도	첨도	M	SD	왜도	첨도
1. 정신적건강	4.39	.74	-1.72	5.38	4.67	.61	-2.12	.29
2. 신체적건강	4.45	.64	-.75	-.42	4.40	.63	-.56	.29
3. 외모	4.18	.78	-.53	-.55	3.93	.89	-.38	-.69
4. 인품/성품	4.24	.73	-.66	.10	4.24	.85	-1.09	.74
5. 긍정성	4.27	.78	-.73	-.28	4.48	.71	-1.29	1.34
6. 배려/존중	4.06	.88	-.69	-.19	4.05	.90	-.61	-.45
7. 노력/성실성	4.21	.78	-.60	-.42	4.20	.81	-.75	-.07
8. 자기사랑/자기인정	4.26	.77	-.90	.59	4.49	.75	-1.55	2.26
9. 자신감/자부심	4.23	.72	-.63	.13	4.52	.56	-.62	-.66
10. 가치관/윤리/도덕	3.74	1.11	-.50	-.82	4.10	1.00	-1.15	.77
11. 종교	3.12	1.27	.00	-1.04	2.54	1.15	.62	-.12
12. 객관적 능력	3.83	.84	-.32	-.41	3.60	.92	-.53	-.03
13. 주관적 능력	3.77	.82	-.42	-.14	3.96	.79	-.50	.05
14. 지적능력/지식	3.82	.76	-.54	.32	3.67	.82	-.66	.87
15. 말솜씨/화술	3.82	.94	-.53	-.50	3.45	.93	-.55	.14
16. 성취/성공	3.95	.85	-.38	-.56	3.94	.83	-.54	-.09
17. 학업성공	3.77	.93	-.49	.07	3.31	.97	-.17	-.33
18. 자신의 학력/학벌	3.77	.84	-.19	-.53	3.31	.94	.00	-.47
19. 자신의 직업	3.92	.81	-.40	-.26	3.67	.86	-.48	-.29
20. 자신의 명예/지위	3.71	.84	-.22	-.44	3.39	.92	-.38	.08
21. 가족의 명예/지위	3.64	.96	-.30	-.30	3.27	1.10	-.13	-.50
22. 중요한 사람의 인정	3.94	.76	-.33	-.20	3.91	.90	-.85	.84
23. 사회적 평판	3.74	.77	-.56	.24	3.64	.73	-.27	-.04
24. 자신의 경제력	3.88	.80	-.16	-.60	3.69	.86	-.68	.67
25. 가족의 경제력	3.77	.89	-.07	-.89	3.19	.93	-.28	.06
26. 소유물	3.67	.87	.02	-.69	2.99	.93	.03	.27
27. 가족/가정	4.02	.77	-.64	.43	4.21	.83	-.75	-.23
28. 가족구성원	4.11	.84	-.68	-.12	4.01	1.00	-.84	.25
29. 가족간의 사랑	4.29	.72	-.75	.28	4.39	.80	-1.01	-.04
30. 가정생활/분위기	4.30	.68	-.46	-.76	4.46	.72	-1.22	.98
31. 대인관계	4.32	.75	-1.06	1.16	4.39	.80	-1.20	.84
32. 친구관계	4.35	.69	-.88	.78	4.37	.74	-.96	.40
33. 이성/연인관계	3.88	.85	-.38	-.42	3.87	.95	-.38	-.81
34. 공동체내 관계	3.89	.84	-.59	.00	4.04	.81	-.62	-.09
35. 봉사/기부	3.45	.85	.07	-.52	3.28	.95	-.17	.24
36. 취미/여가생활	3.88	.71	-.35	.21	3.73	.90	-.34	.07
37. 주변/생활환경	3.76	.79	-.72	.42	3.60	.80	-.05	-.39

등을 함께 고려하여 표 2와 같이 최종 DoSEAS-K 예비척도 37문항을 개발하였다.

DoSEAS-K 예비척도의 이해도와 중요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남녀 대학생 67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였다. 응답방식은 이해도의 경우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1점)’에서 ‘잘 이해된다(5점)’의 5점 척도로, 중요도의 경우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5점)’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DoSEAS-K의 구성개념의 타당성과 내용타당도는 연구자들이 전체 설문지를 재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점검하였고, 문항의 간결성과 명확성은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1명의 국어교사가 검토하였다.

## 결 과

먼저 구성개념의 타당성과 내용타당도를 검토하여 문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8번(자기사랑/자기인정)과 27번(가족/가정)의 2문항을 제거하였다. 이어서 문항의 간결성과 명확성에 대한 평가와 문항의 이해도와 중요도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하였다.

표 3에 나와 있는 것처럼 DoSEAS-K 예비척도 각 문항의 이해도와 중요도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문항 이해도와 중요도의 평균이 3.0점 이상이었지만 11번(종교)과 26번(소유물)은 3.0이 되지 않아 11번은 ‘종교/신앙’으로, 26번은 ‘소유물(예: 핸드폰, 아파트 차)’로 문항의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게 수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8번과 27번 문항이 제거되고 최종적으로 35문항 선정되었다.

## 연구 2: 한국형 자존감 평가영역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타당화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서 DoSEAS-K의 최종적으로 35개의 예비문항을 선정하고, 척도의 요인구조를 탐색하였다. 이후 DoSEAS-K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나온 자존감 평가영역들의 내적 일치도 및 자존감 관련 변인들 간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존감 평가영역을 측정하는 DoSEAS-K와 개념적으로 유사한 Rosenberg 자존감 및 자기효능감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확인하였고, 개념적으로 관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변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확인하였으며, 이론적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관련될 것으로 기대되는 성격변인 중 하나인 성실성(conscientiousness)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공존타당도(concurrent validity)를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변별타당도 지표로 사회적 바람직성을 선택한 이유는 만일 DoSEAS-K가 사회적 바람직성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면 이는 긍정적인 반응편향과 혼입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구성개념으로서의 가치가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DoSEAS-K가 변별타당도가 있으려면 사회적 바람직성과는 유의하지 않거나 아니면 최소한 낮은 정도의 상관을 보여야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끝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동일 연구 참여자 일부를 대상으로 4주 뒤 DoSEAS-K를 재실시하여, 두 척도 점수들 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 방 법

### 연구대상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연령, 성별, 학력, 직업, 결혼여부, 지역별 분포 등을 감안하여 전국단위 할당표집(Quota Sampling)을 통해 만 13세부터 만 59세까지 1,01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4명을 제외한 986명의 자료가 실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성별분포는 남성 479명(48.6%), 여성 507명(51.4%)이었고, 연령분포는 10대 151명(15.3%), 20대 193명(19.6%), 30대 211명(21.4%), 40대 232명(23.5%), 50대 199명(20.2%)이었다. 더불어,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986명의 연구 참여자 중 일부인 94명을 대상으로 4주 후에 동일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때, 94명 중 두 번째 시점에서 측정이 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6명을 제거하여, 총 88명의 자료를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에 사용하였다.

### 측정도구

#### 한국형 자존감 평가영역

##### 예비척도(DoSEAS-K)

DoSEAS-K 예비척도는 총 35문항의 리커트(Likert) 5점 척도(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5 = 매우 중요하다)이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평정한다.

##### Rosenberg 자존감 척도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

Esteem Inventory: RSE)는 개인의 전반적인 자존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로서 총 10문항의 리커트식 4점 척도이며, 긍정 문항 5개와 부정 문항 5개의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총점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자존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병재(1974)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자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88이었으며(Fleming & Courtney, 1984),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5로 보고되었다(Silber & Tippett, 1965).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82로 나타났다.

##### 자기조절 효능감

참여자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김아영(1997)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4문항의 리커트식 5점 척도이며,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감 요인은 어려운 일, 위험 상황,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는지 기대하는 바에 대해 측정하는 것이고, 자기조절 효능감 요인에서는 문제나 상황에 대한 판단력, 정확성, 원인과 결과 분석력, 정보 활용도, 계획성, 조직성, 일에 대한 끈기 등을 측정하며, 과제난이도 선호 요인에서는 어렵거나 도전적인 일을 선택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이중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 효능감 요인의 10개 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김아영(1997)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자기조절 효능감 요인의 내적 일치도는 .87로 나타났다.

### 사회적 바람직성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rowne와 Marlowe(1960)의 사회적 승인 동기 척도(Marlowe-Crowne Social Desirability Scale: MCSD)를 Reynolds(1982)가 13문항으로 축소한 척도를 사용하였다(MCSD-13). 본 연구에서는 박중규(1999)가 번안 타당화한 MCSD-13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보편적이지 않은 행동들이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보편적이라고 이해되는 행동들에 대한 것이며,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게 된다. MCSD는 자기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보이게끔 응답하는 경향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각종 도구의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Crowne & Marlowe, 1964). 박중규(2009)의 연구에서 MCSD-13의 내적 일치도는 .58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57이었다.

### 성실성

성실성을 측정하기 위해 NEO 인성검사(NEO-PI-RS: 민병모, 이경임, 정재창, 1997)의 단축형(김도영, 유태용 2002)을 사용하였다. NEO 인성검사는 Costa와 McCrae(1992)가 개발한 NEO-PI-R을 민병모, 이경임, 정재창(1997)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국내에서 자료를 얻어 표준화한 것이다. NEO 인성검사(NEO-PI-RS: 민병모, 이경임, 정재창, 1997)의 단축형은 김도영, 유태용(2002)이 총 240개 문항 중 5요인 각각을 잘 나타내는 문항 12개씩을 추출하여 총 60문항으로 구성한 것이다. 5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가자들은 “1 = 전혀 아니다” 에서부터 “5 = 매우 그렇다” 사이에서 응답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실성 영역 12문항만을 활용하였으며, 내적 일치도는 .78이

었다.

### 자료분석

DoSEAS-K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고 최종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Factoring)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존감의 영역은 구분되어 있지만 요인들 간 정적 상관이 기대되었으므로 사각회전인 프로맥스(Promax)를 실시하였다. 이때, 요인의 수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스크리도표와 더불어 주관적 판단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행분석(Parall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Zwick & Velicer, 1982). 예비문항 각각에 대해서 문항의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문항의 교차부하량(cross-loading), 문항-총점 상관(item-total correlation), 문항-요인 상관(item-factor correlation) 등을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자존감의 준거 문항(예: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과의 상관이 높은 문항을 DoSEAS-K의 본 문항으로 선정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이후에 선정된 하위요인들과 전체점수를 이용해서 척도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살펴보았다.

### 결 과

DoSEAS-K 예비척도 35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본적합도를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 Measure)가 .9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p < .001$ 로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이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achnick & Fidell, 2001). 최대우도법의 Promax 회전방식을 통해 도출된

표 4. 한국인 자존감 평가영역척도(DoSEAS-K)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DoSEAK-K (29문항; $\alpha = .92$ )	패턴 계수				M	SD
	F1	F2	F3	F4		
<b>요인 1: 사회적·객관적 능력(15문항; <math>\alpha = .90</math>)</b>						
학력/학벌	<b>.828</b>	-.170	-.052	-.035	3.36	.94
직업	<b>.741</b>	-.174	.007	.073	3.69	.86
학업성적	<b>.738</b>	-.057	-.068	-.044	3.37	.90
객관적 능력(예: 스펙, 자격증, 경력 등)	<b>.685</b>	.070	-.073	-.046	3.54	.84
성취/성공	<b>.623</b>	.070	.097	-.066	3.85	.77
자신의 명예/지위	<b>.600</b>	.030	.011	.023	3.70	.77
자신의 경제력(예: 연봉, 월급, 용돈 등)	<b>.587</b>	-.002	.021	.146	3.96	.80
소유물(예: 핸드폰, 아파트, 차 등)	<b>.587</b>	-.171	.031	.075	3.44	.86
사회적 평판	<b>.542</b>	.127	.051	-.004	3.77	.75
가족의 경제력	<b>.537</b>	-.080	-.014	.274	3.71	.82
말씀씨/화술	<b>.521</b>	.199	.088	-.166	3.77	.79
가족의 명예/지위	<b>.518</b>	.037	-.182	.265	3.57	.87
지적능력/지식	<b>.510</b>	.287	.015	-.074	3.82	.73
외모	<b>.425</b>	-.005	.181	-.144	3.80	.73
주관적 능력(예: 업무수행, 문제해결, 리더십 등)	<b>.419</b>	.280	.093	-.062	3.91	.70
<b>요인 2: 긍정적 성품(7문항; <math>\alpha = .86</math>)</b>						
배려/존중	-.105	<b>.796</b>	-.018	.019	4.23	.67
긍정적 태도	.005	<b>.783</b>	-.081	.029	4.26	.68
노력/성실성	-.006	<b>.737</b>	.025	-.039	4.30	.70
가치관/윤리/도덕	-.039	<b>.640</b>	-.070	.106	4.06	.80
자신감/자부심	.111	<b>.619</b>	-.001	-.045	4.16	.69
인품/성품	-.063	<b>.610</b>	.060	.018	4.40	.66
정신적 건강	-.014	<b>.523</b>	.056	.146	4.21	.76
<b>요인 3: 대인관계(4문항; <math>\alpha = .80</math>)</b>						
대인관계	-.032	-.028	<b>.866</b>	.060	4.20	.70
친구관계	-.041	-.005	<b>.866</b>	.029	4.14	.71
공동체내 관계(예: 직장동료, 사제관계, 동호회 등)	.101	.123	<b>.504</b>	.017	3.96	.70
이성/연인관계	.131	.044	<b>.441</b>	.022	3.85	.82
<b>요인 4: 가족(3문항; <math>\alpha = .81</math>)</b>						
가족 간의 사랑	-.068	.105	.029	<b>.873</b>	4.32	.77
가정생활/분위기	-.069	.098	.164	<b>.751</b>	4.32	.76
가족구성원(예: 부모, 배우자, 자녀 등)	.262	-.022	-.041	<b>.516</b>	3.81	.88

스크리 도표와 해석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 4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4요인 구조를 확정하고 문항선정기준(요인부하량 .40 이상, 교차부하량 .30 이하, 한 요인이 최소 3개 이상 문항 보유)에 따라 해당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6개 문항들(중요한 사람(예: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인정, 주변생활환경, 취미/여가생활, 자원봉사/기부, 종교/신앙, 신체적 건강)를 삭제하였고, 그 결과 전체 변량의 49.68%를 설명하는 4요인, 총 29문항의 DoSEAS-K 척도가 확정되었다. DoSEAS-K의 각 요인별 요인 부하량 및 공통성, 요인점수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나타난 각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요인 1은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고 요인계수의 크기는 .42에서 .83이다. 주로 학력이나 학벌, 직업, 학업성적 등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객관적인 영역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포함되었다. 요인 1은 기존 자존감 연구들이 제안하지 못했던 자아와 무관한 외부 요인 중 개인의 자존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력, 사회적 평판 등이 한국인의 주요한 자존감 평가영역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외현적인 능력과 사회적 지위 등을 나타내는 요인 1을 “사회적·객관

적 능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되고 요인계수의 크기는 .52에서 .80이다. 배려와 존중, 긍정적 태도 등 내현적이며 긍정적인 성격 요인들을 나타내는 범주들의 집합으로, 타인들의 평가나 의견과 상관없이 자신의 내적기준을 근거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요인 2를 “긍정적 성품”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4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친구나 직장동료, 동호회 회원들 간의 관계 등 대인관계 장면을 반영하는 영역들이 포함되었다. 이는 서구에 비해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타인과의 관계가 자신의 자존감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 요인을 “대인관계”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되는 문항들을 살펴보면 가족 간의 사랑, 가족 내의 분위기 등 가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요인으로, 서구 사회와는 달리 가족주의적 성향인 한국 문화권에서 성장한 한국인들에게는 가족관계 경험이 자존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가족”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29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92로 나타났고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사회적·객관적 능력이 .90, 긍정적 성품이 .86, 대

표 5. DoSEAS-K의 하위 요인 간 상관계수 및 평균, 표준편차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M	SD
요인 1(사회적·객관적 능력)	-				3.68	.52
요인 2(긍정적 성품)	.326***	-			4.23	.52
요인 3(대인관계)	.385***	.576***	-		4.04	.58
요인 4(가족)	.379***	.506***	.536***	-	4.15	.68
DoSEAS-K 총점	.868***	.697***	.695***	.659***	3.91	.43

\*\*\* $p < .001$ .

인관계 .80, 가족 .81로 적절한 수준의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DoSEAS-K 총점과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분석 및 각 하위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한국인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평가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4가지 하위 요인들 각각은 한국인 자존감 평가영역 전체(DoSEAS-K)와 .66에서 .87의 유의한 정적 상관( $p < .01$ )을 보였으며, 각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은 .33에서 .58로 역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p < .01$ ). 즉 DoSEAS-K의 각 하위 요인은 상호 관련되지만 동시에 각각 한국인 자존감 평가영역별 고유한 특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형 자존감 평가영역척도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 검증을 위해 DoSEAS-K의 4개 하위요인들과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자기조절 효능감, 성실성, 사회적 바람직성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에서 1종 오류가 증가하여 유의하게 나올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Bonferroni식 교정방법을 적용하여 유의도 수준 ( $.05/4 = .0125$ )을 교정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평가하였다.

DoSEAS-K의 각 하위요인과 Rosenberg의 자

아존중감과 관계를 살펴보면, 긍정적 성품, 대인관계, 가족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나 사회적·객관적 능력과는 관련이 없었다. 즉, 긍정적 성품이나 가족, 대인관계가 자신의 자존감을 평가하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는 정도와 전반적으로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정도는 정적 관련성이 있지만, 사회적·객관적 능력이 자존감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마음과 관련되지 않았다. DoSEAS-K의 각 하위요인과 자기조절 효능감 및 성실성과는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승인을 높이기 위해 좋은 인상을 주는 방식으로 응답하려는 성향인 사회적 바람직성과 DoSEAS-K의 모든 하위요인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이는 자존감 평가영역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대답이라고 믿고 응답을 하는 경향과는 관계가 없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DoSEAS-K의 변별타당도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DoSEAS-K의 시간적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4주 간격으로 2회 반복 측정된 전체 및 하위요인들의 점수들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DoSEAS-K 총점의 검사-재검사

표 6. DoSEAS-K와 심리측정도구들과의 상관분석 결과

	한국형 자존감 평가영역 척도(DoSEAS-K)			
	사회적·객관적 능력	긍정적 성품	대인관계	가족
Rosenberg 자존감	.071	.227*	.142*	.200*
자기조절 효능감	.353*	.375*	.342*	.309*
성실성	.213*	.272*	.196*	.253*
사회적 바람직성	.073	-.075	-.013	-.040

\* $p < .01$

신뢰도 계수는 .80이었으며, 하위요인별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사회적·객관적 능력 .75, 긍정적 성품 .76, 대인관계 .69, 가족 .66으로, 모두 적절한 수준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나타냈다( $p < .001$ ).

### 연구 3: 한국형 자존감 평가영역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 3의 목적은 확인적 요인분석과 준거 관련 타당도 검증을 통해서 DoSEAS-K의 구성 개념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연구 2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선정된 29개 문항의 4개 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준거 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Rosenberg 자존감 척도를 예측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각 문항에 있어서의 중요도를 평가하도록 문항을 구성한 반면,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각 문항에 대한 중요도뿐만 아니라 자존감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족도에 대한 구성개념도 함께 확인하였다.

## 방 법

### 연구대상

연구의 외적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전국단위 계층적 표집방법(Quota Sampling)을 통해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총 807명 중 남자가 397명(49.2%), 여자가 410

명(50.8%)이었다.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10대 121명(15.0%), 20대 162명(20.1%), 30대 178명(22.1%), 40대 187명(23.2%), 50대 159명(19.7%)으로 나타났다.

### 측정도구

#### 한국형 자존감 평가영역 척도(DoSEAS-K)

연구 1과 2를 통해 개발된 DoSEAS-K를 사용하였다. 연구 3에서는 DoSEAS-K의 중요도를 평가되었다. 참여자들은 DoSEAS-K의 각 문항의 중요성을 5점 리커트식 척도(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5 = 매우 중요하다) 상에서 평정한다.

#### Rosenberg 자존감 척도

도구에 대한 설명은 연구 2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 연구 3에서 Rosenberg 자존감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82로 나타났다.

#### 전반적 행복 지수

참여자들의 행복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은국과 구재선(2011)이 개발한 단축형 행복 척도(A 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9문항의 리커트식 7점 척도이며, 삶의 만족 3문항, 긍정적 정서 3문항, 부정적 정서 3문항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삶의 만족 문항에는 개인적 삶, 대인관계와 소속집단에 대한 만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서적 행복 문항들은 사람들이 쉽게 경험하면서도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서들을 추출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인 행복 지수는 삶의 만족 문항 점수와 긍정적 정서 문항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부정적 정서 문항 점수를 빼서



계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 행복 지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서은국과 구재선(2011)의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7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9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89였다.

### 간이 정신건강 측정도구

간이증상검사(Brief Symptom Inventory; BSI)는 Derogatis과 Melisaratos(1983)가 개발한 척도로서 총 53문항의 5점 리커트식 척도이며, 9개의 증상(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및 심리적 문제의 심각도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설문 당일을 포함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여 응답하게 된다. 본래 이 검사는 간이정신진단 검사지(Symptom Checklist 90 - revision; SCL 90-R)의 단축형으로, SCL 90-R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정신증  $r = .92$ , 적대감  $r = .99$ ; Derogatis, 1977). 본 연구에서는 Lee, Park, Heppner 및 Heppner(2003)가 번안한 척도를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하였는데 우울(6문항) 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내적 일치도는 .96으로 나타났다.

### 연구절차

연구 2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DoSEAS-K의 요인 구조의 교차타당화를 위하여 AMOS 18.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chi^2$ 검증과 더불어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Standard Root-Mean-Square

Residual)을 확인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홍세희(2000) 및 Hu와 Bentler(1999)의 기준에 따라 CFI와 TLI는 .90 이상, RMSEA와 SRMR은 .08이하로 판단하였다. DoSEAS-K의 공준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18.0을 이용하여 Rosenberg 자존감 척도와 행복 척도, 우울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4개 요인과 29문항으로 구성된 DoSEAS-K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371) = 2621.468(p < .001)$ 이었으며, SRMR은 .063으로 .08보다 작았지만 CFI가 .856, TLI가 .843, RMSEA가 .087로 모형 적합도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다음 단계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고려하여 두 개의 측정변수가 유사한 문항의 오차간 공분산을 연결하였다(홍세희, 2000). 이때, 그 문항들이 속한 요인이 다를 경우에는 수정지수가 높게 나오더라도 공분산을 연결하지 않았다. 수정지수를 사용하여 총 14개의 오차간 공분산(예, 학업성적과 학력/학벌, 자신의 명예/지위와 가족의 명예/지위 등)을 연결하여 최종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chi^2(357) = 1701.482(p < .001)$ 이었으며, 모형 적합도 지수도 모두 양호하였다(CFI = .914, TLI = .902, RMSEA = .068, SRMR = .057). 또한 각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인 측정문항과 잠재요인 간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최소 .604에서 최대 .916으로 모든 측정문항이 각각의 잠재변인들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연구 2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DoSEAS-K의 4개 요인 구조(사회적·객관적 능력, 긍

표 7. DoSEAS-K와 긍정적·부정적 정신건강 지표들과의 상관분석 결과(N = 807)

	한국형 자존감 평가영역 척도(DoSEAS-K)			
	사회적·객관적 능력	긍정적 성품	대인관계	가족
Rosenberg 자존감	.370*	.487*	.379*	.371*
행복지수	.510*	.538*	.553*	.535*
우울	-.186*	-.288*	-.280*	-.319*

\* $p < .0167$ .

정적 성품, 대인관계, 가족)가 독립적 표본에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DoSEAS-K의 공존타당도(concurrent validity)를 검증하기 위해 DoSEAS-K의 각 요인과 Rosenberg 자존감, 행복지수, 우울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Bonferroni 교정방법을 사용한 유의도 수준(.05/3 = .0167)이 적용되었다. DoSEAS-K의 모든 하위요인들은 Rosenberg 자존감과 행복지수와는 정적 상관, 우울과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사회적·객관적 능력 영역, 긍정적 성품 영역, 대인관계 영역, 가족 영역이 자존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각할수록 전반적 자존감 수준과 행복지수는 높아지고 우울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DoSEAS-K의 하위요인들이 긍정적·부정적 정신건강 지표들과 기대되는 방식으로 연관성을 보인다는 결과다. 따라서 DoSEAS-K의 공존타당도에 대한 근거가 지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종합논의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은 어떤 요인으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기존 연구(차경호 등, 2006; 홍기원 등, 2003; 홍기원 & 한영석, 2005)에서 자존감이 고취/저하되는 ‘상황’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춰 특정 영역이 지나치게 반영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가족이나 경제력 등 현실 생활에 밀접한 자존감의 차원들이 추가되도록 보완되었다. 요인 1은 ‘사회적·객관적 능력’으로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력이나 직업, 학업성적, 경제력 등 외적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역량을 자존감의 중요한 영역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지위 및 타인의 인정, 성취를 보이는 것이 개인의 자존감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영역임을 의미한다. 다만, ‘사회적·객관적 능력’의 각 문항별 표준편차 평균( $SD = 7.83$ )이 나머지 세 개 하위요인들 보다 2배에서 3배가량 더 넓게 퍼져 있는데, 이는 ‘사회적·객관적 능력’이 자존감의 중요한 평가영역이라고 사람들이 합의하는데 있어서 다른 요인들에 비해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DoSEAS-K 요인 1(‘사회적·객관적 능력’)에는 이수란 등 (2008)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자존감의 영역별

수반성 중 ‘우월성’ 요인에도 속하는 능력, 성적, 외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쟁과 성공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한국 현실에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될 수 있는 경쟁의 결과 영역으로 요인 1을 해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회적·객관적 능력’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지각하는 것과 타인의 의견과 평가에 민감한 경향성을 띄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관련해서, DoSEAS-K의 각 하위요인 중 ‘사회적·객관적 능력’ 요인만이 대인관계민감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점은 기존 연구결과와 일관적이다. 예를 들어, 박정현과 서은국(2005)에 의하면, 외적인 단서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람일수록 행복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외적 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내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사람들에 비해 긍정적 정서경험이 낮았다.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객관적 능력’ 요인은 다른 세 가지 하위요인과 달리 불안과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경험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존감 및 한국인 행복지수와도 관련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회적·객관적 능력을 자존감의 중요한 영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 자신이 지각하는 외적 역량보다 높은 자기상을 설정하고 이로 인한 자기상의 불일치로 인해 정서적 불편감이나 좌절감,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Hewitt & Dyck, 1986; Higgins, 1987). 외부적인 단서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람일수록 행복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외적 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회적·객관적 능력’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행복이나 자존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신의 자존감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후속 연구를 통해 특정 자존감 영역에 대한 중요성과 그 영역에서 실제 자신의 경험에 대한 평가 사이의 불일치 정도를 탐색하여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인 2는 배려와 존중, 긍정적 태도 등 총 7문항으로 이루어진 ‘긍정적 성품’ 요인이다. Crocker와 그의 동료들(2003)은 자존감의 수반성 영역을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구분하였다. 이 기준에 의하면 외적인 영역은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가 가능하고 타인의 인정과 관련이 높은 반면, 내적 영역은 타인의 의견이나 평가와 상관없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DoSEAS-K의 ‘사회적·객관적 능력’ 요인과 ‘긍정적 성품’ 요인을 구분 짓는 성격과 유사하다. 즉, ‘긍정적 성품’ 요인은 삶의 객관적인 환경보다 자신과 다른 사람, 세상에 대한 나 자신의 긍정적 태도에 관한 영역으로, 노력·성실성, 가치관·윤리·도덕 자신감과 자부심 등은 시간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 자존감에 중요한 평가영역이 된다. 자신과 타인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성격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우울감을 느끼지 않았고, 불안 및 대인관계민감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Carl Rogers(1950)는 자존감 향상과 심리적 건강의 증진을 위해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기보다 자기 내면에 집중하면서 외부평가와 내부 지각 간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가 제시한 자기 가치에 대한 평가 소재(Locus of Evaluation: LOE)에 의하면, 개인의 LOE가 내부에 있는 경우 자기 자신이 가치평가의 중심이 되어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행복감을 더 느끼게 된다. LOE에 따라 한국인의 자존감

의 평가영역을 구분해 보면 ‘사회적·객관적 능력’ 요인은 외적통제소재, ‘긍정적 성품’ 요인은 내적 통제소재로 나뉠 수 있다. 학업성적 등 외부사건이나 타인의 평가에 자기가치가 좌우되기보다 내적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느끼는 행복감도 크다. 본 연구에서도 ‘긍정적 성품’ 요인과 자존감, 행복지수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DoSEAS-K에서 긍정적 태도,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수용 등이 자존감을 평가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도출된 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각 개인이 느끼는 정서가 자존감을 예언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 기분 좋아하며 만족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동시에 자신의 단점에 대해 불만과 열등감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임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안신호, 박미영, 2005)와도 관련된다. 즉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각 영역별 태도와 관련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요인 3은 ‘대인관계’로 친구관계, 공동체 내 관계, 이성·연인 관계 등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인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인정받고 지지·격려 받는 ‘대인관계’ 요인은 Sedikides와 Brewer(2001)의 관계적 자아(relational self)와 비교된다.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가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와 같이 개인적 자아(individual self)에 대한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한국인의 자존감 평가영역에서는 자신의 성취, 외모, 경제력 등의 개인적 자아(요인 1)뿐 아니라 관계적 자아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차경호 등(2006)의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판 성인용 자존감 척도에서도 개인적 자아뿐 아니라 부모에

의한 인정 등의 관계적 자아, 국가 자부심과 같은 집합적 자아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비교문화심리학자들은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를 집단주의 사회로 규정해왔으나, 최근 들어 한국사회가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주의 문화로 변화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면서 한국인의 자존감을 기존의 수직-집단주의 문화로만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한유화, 정진경, 2007). 이번 DoSEAS-K 탐색적 연구에서 나타난 요인들은 한국문화의 개인주의 차원과 집단주의 차원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주의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인 개인의 성취, 경쟁에서의 승리, 상대적 우월감 등의 내용과 집단주의 문화에서 중요시하는 타인과의 관계, 주위사람들로부터의 인정 등의 특성이 요인별로 나타나,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문화를 그대로 지지하고 있어 좀 더 타당하고 정확하게 한국인의 자존감 평가영역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요인 4는 총 3문항으로 가족 간의 사랑, 가정생활·분위기, 가족구성원 등이며 ‘가족’으로 명명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며 각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며, 서로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따뜻한 가족애와 가정 분위기를 자존감의 중요한 영역중 하나로 꼽았다. 특히 서구에 비해 가족주의적 성향의 문화권에서 성장해 온 한국인들에게는 가족관계에서의 경험이 개인의 삶을 크게 좌우할 수 있을 것이다. Rosenberg(1965)는 부모의 관심이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하였다. 특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이며(Coopersmith, 1981), 자아존중

감이 높은 청소년의 부모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녀에게 자유를 허용하고, 따뜻하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의 일에 깊은 관심을 쏟는다. 이 때문에 가족갈등은 자존감을 손상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며, 자녀가 가족갈등을 높게 인지할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았다(정익중, 2007).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자존감에도 원가족의 건강성은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서하진, 김정옥, 2009). 특히 가족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위기를 통해 가족관계를 강하게 결속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있으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족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가족환경에서 성장한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가족’ 요인은 자존감 및 한국인 행복지수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불안, 우울, 대인관계 민감성과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문화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2002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학생들은 가족이나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Diener & Seligman, 2002). 또한 영국인들 대상 연구에서는 가장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자원 중 하나로 가족과 가정생활이 제시되었다(Hall, 1976). 이처럼 가족이 개인의 자존감과 행복에 있어 중요한 영역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개발·타당화한 한국형 자존감 평가영역 척도(부록)는 Rosenberg의 전반적 자존감 척도 중심의 연구가 지닐 수 있는 한계와 아울러 서구에서 개발된 자존감 혹은 자기개념 평가 영역들을 한국인에게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단위 다양한 연령, 직업 계층의 한국인들

을 대상으로 이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평가할 때 중요한 삶의 영역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는 다양한 분야의 응용심리학자들, 예를 들어 상담, 임상, 학교, 건강, 발달, 교육심리학자들이 여러 계층의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 및 상담 장면에서 자존감이 낮은 학생 혹은 내담자가 내방했을 때 심리학자들은 학생 혹은 내담자의 총체적인 자존감 점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본 연구에서 확인된 네 가지 영역(사회적·객관적 능력, 긍정적 성품, 대인관계, 가족)에서의 자존감 수준을 확인하고 이 중 어떤 부분이 특히 문제가 있는지 혹은 어떤 프로파일을 보이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학생 및 내담자가 토로하는 고민을 담은 일화 중에서 특히 어떤 측면에서의 교정 및 재학습이 필요한지, 즉 개입의 대상 및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존감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본 연구결과에 바탕을 두고, 그동안 총체적 혹은 전반적 자존감 일변도의 연구에서 벗어나 영역 특정한 자존감과 정신건강간의 밀도 있는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보다 세분화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존감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론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비록 전국단위 인구비례적인 표집을 통해 연구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 측면에서 강점이 있지만 자료수집의 과정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필검사를 통한 응답이나 면접을

통한 응답에 비해 반응의 성실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확인된 4개의 자존감 평가영역(사회적·객관적 능력, 긍정적 성품, 대인관계, 가족)이 다양한 정신건강 지표(심리부적응 및 행복)를 예측하는 측면에서 기존의 전반적 자존감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같은 맥락에서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자존감 평가영역 점수에서 차이가 있는지, 이 점수들이 한 개인의 생애발달 과정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한 특정 영역들에 대해 개인이 부과하는 중요성과 실제로 이 영역에서 느끼는 만족도 사이의 괴리가 정신건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본 연구결과로는 충분한 답을 제공하기 어렵다. 넷째, 본 연구에서 DoSEAS-K 문항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 비록 전문평정자들 간에 합의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전문가들 간의 일치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량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항의 타당성에 대한 확신 정도에서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끝으로, DoSEAS-K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확인적’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는데 그 이유는 확인적 요인분석 실시 과정에서 수정지수에 근거하여 여러 오차항간의 공분산을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정지수를 적용하게 되면 원래 가정했던 가설적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의미는 반감되고 여전히 탐색적인 특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DoSEAS-K 문항들의 요인구조를 다른 표본에서 재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 김도영, 유태용 (2002). 성격의 5요인과 조직에서의 맥락수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5(2), 1-24.
- 김아영 (1997).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변인 연구. 교육심리연구, 11(2), 1-19.
- 김희화, 김경연 (1996). 한국 아동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4(5), 1-12.
- 민병모, 이경임, 정재창 (1997). NEO 인성검사 (NEO-PI-R). PSI 컨설팅.
- 박정현, 서은국 (2004). 사람의 내-외적인 모습에 두는 상대적 비중과 행복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4), 19-31.
- 박중규 (1999). 아동의 방해적 문제행동에 대한 인지-행동적 부모훈련과 행동적 부모훈련의 치료효과 비교.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중규 (2009). 청소년 대상 단축형 13문항 Marlowe-Crowne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요인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3), 429-439.
- 서은국, 구재선 (2011). 단축형 행복 척도 (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95-113.
- 서하진, 김정옥 (2009).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 건강성이 자아존중감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학회지, 14(3), 141-178.
- 신윤오, 조수철, 김병로 (1994). 한국판 소아자기개념척도 개발. 신경정신학회지, 33(6), 1351-1369.
- 신철 (1997). 초등학교 아동의 진로 인식과 자아 개념과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8, 163-

- 218.
- 안신호, 박미영 (2005). 자존감 결정요인: 영역별 능력과 자기수용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1), 109-140.
- 안현진 (2003). 미혼남녀의 성의식과 자아존중감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연구: 20대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명희, 김아영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57-174.
- 이수관, 이동귀 (2008). 자존감의 영역별 수반성과 자기 평가 간 불일치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313-335.
- 이은혜, 신숙재, 송영주 (1992). 초등학교 3-6학년 아동을 위한 자아지각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 6, 175-191.
- 전병재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 109-129.
- 정원식 (1995). 자아개념검사요강. 서울: 코리안테스팅 센터.
- 정익중 (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47, 127-166.
- 차경호 (2001). 대학생들의 성격특성과 삶의 만족도. *청소년상담연구*, 9(1), 7-26.
- 차경호, 홍기원, 김명소, 한영석 (2006). 한국 성인의 자존감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 105-139.
- 최상진, 윤호균, 한덕웅, 조공호, 이수원 (1999). *동양심리학: 서구심리학에 대한 대안 모색*. 서울: 지식산업사.
- 한유화, 정진경 (2007).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 개인주의적 및 집단주의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117-131.
- 홍기원 (2008). 대학생들의 자존감 구성요인에 있어서 문화적, 성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 237-261.
- 홍기원, 김명소, 이종택, 한영석 (2003). 한국 성인 남녀의 자존감 구성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2), 33-52.
- 홍기원, 한영석 (2005).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한국 성인들의 자존감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2), 135-156.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Baumeister, R. F. (1999). Low self-esteem does not cause aggression. *APA Monitor*, 30, 4.
- Baumeister, R. F., Smart, L., & Boden, J. M. (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103, 5-33.
- Baumeister, R. F., & Tice, D. M. (1988). Metatracts. *Journal of Personality*, 56, 571-598.
- Brandstadter, J., & Greve, W. (1994). The aging self: Stabilizing and protective processes. *Developmental Review*, 14, 52-80.
- Brockner, J. (1984). Low self-esteem and behavioral plasticity: Some implication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In L. Wheeler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 pp.237-271). Beverly Hills, CA: Sage.
- Brown, J. D. (1994, October). *Self-esteem: It's not what you think*. Paper presented at the Society for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Lake Tahoe, NV.

- Coopersmith, S. (1967). Parent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self-esteem. In S. Coopersmith (Ed.), *Antecedents of self-esteem* (pp.96-117). San Francisco: Freeman.
- Costa, P. T., Jr., & McCrae, R. R. (1992).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NEO PI-R) and NEO Five-Factor Inventory (NEO-FFI):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Crocker, J., & Wolfe, C. T. (2001). Contingencies of self-worth. *Psychological Review*, 108, 593-623.
- Crocker, J., Luhtanen, R. K., Cooper, M. L., & Bouvrette, S. (2003). Contingencies of self-worth in college students: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894-908.
- Crowne, D. P., & Marlowe, D. (1960). A new scale of social desirability independent of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4, 349-354.
- Dawes, R. M. (1994). *House of cards: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built on myth*. New York: Free Press.
- Derogatis, L. R., & Melisaratos, N. (1983). The Brief Symptom Inventory: An introductory report. *Psychological Medicine*, 13, 595-605.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 Diener, D.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53-663.
- Diener, E., & Emmons, R. A. (1984).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105-1117.
- Diener, E., & Seligman, M. E. (2002).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13, 81-84.
- Fitts, W. H. (1965). *Manual for the Tennessee Self Concept Scale*. Nashville, TN: Counselor Recordings and Tests.
- Fleming, J. S., & Courtney, B. E. (1984). The dimensionality of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404-421.
- Fordyce, M. W. (1988). A review of research on the happiness measure: A sixty second index of happiness and mental health. *Social Indicators Research*, 20, 355-382.
- Furnham, A., & Cheng, H. (2000). Perceived parental behaviour, self-esteem, and happines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5, 463-470.
-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New York: Anchor Books.
- Hall, J. (1976). Subjective measure of quality of life in Britain, 1971 to 1975: some developments and trends. *Social Trends*, 7, 47-60.
- Hallowell, A. I. (1955). *Culture and experienc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arter, S. (1985).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Denver, CO: University of Denver.
- Harter, S. (1990). Causes, correlates, and the functional role of global self-worth: A life-span perspective. In R. J. Sternberg & J. Kolligian, Jr. (Eds.), *Competence considered* (pp. 67-97).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 Press.
- Hewitt, P. L., & Dyck, D. (1986). Perfectionism, stress, and vulnerability to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0*, 137-142.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others. *Psychological Review, 94*, 319-340.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James, W. (189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Leary, M. R., & Downs, D. L. (1995). Interpersonal functions of the self-esteem motive: The self-esteem system as sociometer. In M. Kernis (Ed.), *Efficacy, agency, and self-esteem* (pp.123-140). New York: Plenum.
- Leary, M. R., Tambor, E. S., Terdal, S. K., & Downs, D. L. (1995). Self-esteem as an interpersonal monitor: The sociometer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18-530.
- Marsh, H. W. (1986). Global self-esteem: Its relation to specific facets of the self-concept and their import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224-1236.
- Marsh, H. W. (1992). The content specificity of relations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academic self-concep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4*, 35-42.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cca, A. M., Smelser, N. J., & Vasconcellos, J. (Eds.). (1989). *The social importance of self-estee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O'Brien, E. J., & Epstein, S. (1988). *The Multidimensional Self-Esteem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Park, L. E., & Crocker, J. (2005). Interpersonal consequences of seeking self-estee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31*, 1587-1598.
- Pelham, B. W., & Swann, W. B., Jr. (1989). From self-conceptions to self-worth: The sources and structure of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672-680.
- Piers, E. V. (1969). *Manual for the Piers-Harris Children's Self-Concept Scale (The Way I Feel About Myself)*. Nashville, TN: Counselor Recordings and Tests, Department of Mental Health.
- Quevedo, R. J. M., & Abella, M. C. (2011). Well-being and personality: Facet-level analysi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 206-211.
- Reynolds, W. M. (1982). Development of reliable and valid short forms of the Marlowe-Crowne Social Desirability 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8*, 119-125.
- Roberts, J. E., & Gotlib, I. H. (1997). Temporal variability in global self-esteem and specific self-evaluation as prospective predictors of emotional distress: Specificity in predictors and outcom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521-29.
- Rogers, C. R. (1950). The significance of the self regarding attitudes and perceptions. In M. I. Reymert (Ed.), *Feeling and emotion: The Moosebert Symposium* (pp.374-382). New York:

- McGraw-Hill.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Sedikides, C., & Brewer, M. B. (2001). Individual self, relational self, collective self. In A. Sedikides & M. B. Brewer (Ed.), *Individual self, relational self, collective self* (pp.1-6), Philadelphia: Psychology Press.
- Scheff, T. J., Retzinger, S. M., & Ryan, M. T. (1989). Crime, violence, and self-esteem: Review and proposals. In A. M. Mecca, N. J. Smelser, & J. Vasoconcellos (Eds.), *The social importance of self-esteem* (pp.165-199).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ilber, E., & Tippett, J. S. (1965). Self-esteem: Clinical assessment and measurement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16, 1017-1071.
- Tabachnick, B. G., & Fidell, L. S. (1996).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3rd ed.). New York: Harper Collins.
- Tesser, A., & Martin, L. L. (2006). Self-esteem processes are central to psychological functioning and well-being. In M. H. Kernis (Ed.), *Self-esteem issues and answers: A sourcebook of current perspectives* (pp.267-271). New York: Psychology Press.
- Zwick, W. R., & Velicer, W. F. (1982). Comparison of five rules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components to retain. *Psychological Bulletin*, 3, 432-442.
- 1 차원고접수 : 2012. 12. 30.  
수정원고접수 : 2013. 3. 16.  
최종게재결정 : 2013. 3. 19.

## **Domains of Self-esteem Appraisal Scale for Koreans(DoSEAS-K):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Dong-gwi Lee**

Yonsei University

**Nan Mee Yang**

Kyungsang National University

**Hyun-joo Park**

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convenient and psychometrically-sound measure of life domains that are important for Koreans in appraising self-esteem. For this purpose, Domains of Self-esteem Appraisal Scale of Korean(DoSEAS-K) was developed and validated across three studies. DoSEAS-K is composed of 29 items and includes four domains, (a) Social/Objective Ability, (b) Positive Character, (c)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d) Family. Social/Objective Ability domain tapped into areas concerning academic ability, career or occupation, economic status etc. Positive Character domain included items relating to intrapersonal frame of reference(e.g., effort, diligence, values, ethics). Interpersonal Relationship domain involved areas of friendship and relationship in community. Family domain included items with regards to family care and family atmosphere. DoSEAS-K showed appropriate levels of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stimates and sound reliability estimates (both internal consistency and test-retest with a 4-week interval). This study ended with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cale.

*Key words* : self-esteem, domain specific, contingency, scale development

부 록

한국인 자존감평가 영역 척도(DoSEAS-K): 영역의 중요성4)

다음은 한국인의 자아존중감에 관련된 영역들입니다. 각 영역에 대해 귀하의 자아존중감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를 5가지 보기 중에서 골라주세요. 1점부터 5점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평가 영역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1. 외모	①	②	③	④	⑤
2. 인품/성품	①	②	③	④	⑤
3. 긍정적 태도	①	②	③	④	⑤
4. 배려/존중	①	②	③	④	⑤
5. 노력/성실성	①	②	③	④	⑤
6. 자신감/자부심	①	②	③	④	⑤
7. 가치관/윤리/도덕	①	②	③	④	⑤
8. 정신적 건강	①	②	③	④	⑤
9. 객관적 능력(예: 스펙, 자격증, 경력 등)	①	②	③	④	⑤
10. 주관적 능력(예: 업무수행, 문제해결, 리더십 등)	①	②	③	④	⑤
11. 지적능력/지식	①	②	③	④	⑤
12. 말솜씨/화술	①	②	③	④	⑤
13. 성취/성공	①	②	③	④	⑤
14. 학업성적	①	②	③	④	⑤
15. 학력/학벌	①	②	③	④	⑤
16. 직업	①	②	③	④	⑤
17. 자신의 명예/지위	①	②	③	④	⑤
18. 가족(예: 부모형제, 자녀, 배우자 등)의 명예/지위	①	②	③	④	⑤
19. 사회적 평판	①	②	③	④	⑤
20. 자신의 경제력(예: 연봉, 월급, 용돈 등)	①	②	③	④	⑤
21. 가족의 경제력	①	②	③	④	⑤
22. 소유물(예: 핸드폰, 아파트, 차 등)	①	②	③	④	⑤
23. 가족구성원(예: 부모, 배우자, 자녀 등)	①	②	③	④	⑤
24. 가족 간의 사랑	①	②	③	④	⑤
25. 가정생활/분위기	①	②	③	④	⑤
26. 대인관계	①	②	③	④	⑤
27. 친구관계	①	②	③	④	⑤
28. 이성/연인관계	①	②	③	④	⑤
29. 공동체내 관계(예: 직장동료, 사제관계, 동호회 등)	①	②	③	④	⑤

4) 영역의 만족도 척도는 평가 영역 문항은 영역의 중요성 척도와 동일하며 지시문에서 '중요하다'를 '만족한다'로, 평정 척도를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로 바꾸어 제시한다. 개발자 : 이동귀, 양난미, 박현주.